

중국, 미국과 사료 리콜소송 합의

2007년 아미놉테린 검출 파문으로 리콜 ... 미국 · 중국 통상마찰로 확산

미국과 중국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됐던 애완동물 사료(펫푸드) 리콜사태 소송이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사태로 소송에 휘말린 북미 최대의 펫푸드기업 Menu Food는 4월1일 미국과 캐나다의 피해 애완동물 주인들과 잠정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애완동물 주인들의 변호사도 “양측이 핵심 조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확인했다.

Menu Food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2007년 파문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조치와 관련해 총 5380만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Menu Food는 2007년 3월 자사 제품을 먹은 개와 고양이가 원인불명으로 잇따라 죽자 수천만개의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당시 뉴욕 식품연구소는 Menu Food의 일부 제품에서 쥐를 죽일 때 사용하는 아미놉테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문제의 제품에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펫푸드 제조과정에 사용된 중국산 밀단백(글루텐)이 멜라민에 오염됐다고 결론 내려 중국과 미국 양국간 통상마찰로 파문이 확산됐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02>